

기회균등할당제*

편집실

I.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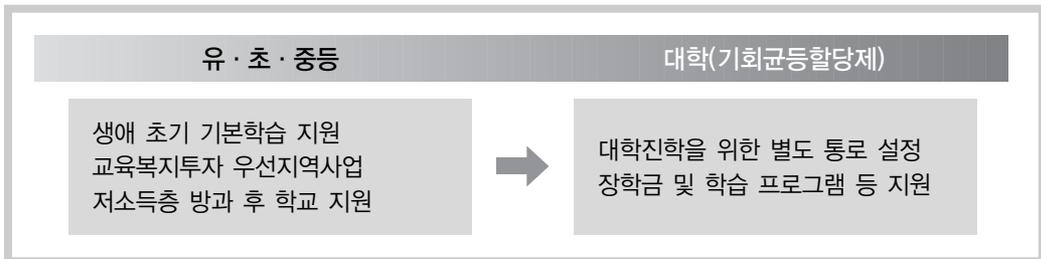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 현상은 해당 세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인 자녀의 학력, 직업, 지위와 소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등교육이 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학력의 대물림' 과 이에 따른 '계층의 대물림' 을 완화하기 위해 균등한 고등교육 접근 기회 보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소외계층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의 대입제도 전형에서는 소득계층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적어 계층 간 이동의 실질적 통로 기능이 취약하고, 선발하는 인원도 충분하지 않아 미흡한 수준이었다.

II. 기회균등할당전형의 도입 방안

기회균등할당제는 현재의 정원 외 특별전형을 개선하여 교육이 사회계층 이동의 실질적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유·초·중등교육부터 대학까지 별도의 진학 경로를 마련하고, 입학 후 장학금, 학습



* 이 글은 『대학교육』 제149호(2007년 9/10월호) 쟁점토론에서 다뤄질 예정인 '기회균등할당제' 에 대한 설명자료로 교육부 보도자료(2007. 6. 27)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표 1〉 2006학년도 4년제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 및 등록 현황

전형 유형	법정모집비율(%)	최대모집인원(명)	실제 모집인원(명)	등록인원(명)	등록률(%)
농어촌 학생	4%	13,951	13,357	11,347	85.0
전문계 고교 출신자	3%(→5%, '08)	10,463	9,326	7,454	79.9
재외국민과 외국인	2%	6,975	3,669	1,293	35.2
특수교육 대상자 등	-	-	4,338	2,991	68.9
소계	9%(11%)	31,389	31,367	23,636	75.4

〈표 2〉 2007학년도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특별전형 현황

	정원 내		정원 외		합계	
	학교 수	모집인원	학교 수	모집인원	학교 수	모집인원
국·공립	40개 교	952명	42개 교	3,407명	42개 교	4,359명
	95.2%	1.1%	100%	3.9%	100%	5.0%
사립	112개 교	3,081명	151개 교	11,397명	151개 교	14,478명
	62.9%	1.1%	78.2%	3.9%	78.2%	5.0%
합계	152개 교	4,033명	193개 교	14,804명	193개 교	18,837명
	69.0%	1.1%	87.7%	3.9%	87.7%	5.0%

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실질적 고등교육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모집 규모는 4년제 및 전문대 입학정원 58만 명의 11%인 64,000명 수준(4년제 : 3만 8천 명, 전문대 : 2만 6천 명 예상)이며, 자격 기준은 현재 법정 모집비율이 정해진 정원 외 특별전형(입학정원의 11%)을(〈표 1〉 참조) 통합하여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관련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대학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정원 내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선발방식은 대학별로 최소한의 수학능력 기준을 정하되, 일반전형의 학력 기준을 고려하여 적합한 기준을 설정(최저학력 기준 : 일반전형 최저학력 기준보다 1~2등급 낮은 수준으로 고려하여 설정)하고, 당장의 시험성적보다는 잠재능력, 소질 등에 초점을 두어 선발(〈표 2〉 참조)한다.

Ⅲ. 기회균등할당전형 입학자에 대한 지원

기회균등할당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과 장학금 등이 지원된다.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기회균등할당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기초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교과목을 별도로 개설하고 이수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교재를 개발하여 이를 정규 커리큘럼에서 활용하게 하는 방법, 3·4학년 선배를 개인 튜터로 하여 1:1로 지도하는 방법 등 다양하며, 대학이 학생 규모·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게 된다.

장학금은, 입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경제적 문제로 학업에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국가에서 입학 후 2년간 전액 장학금을 제공할 예정이며, 3학년부터는 일정 학점(B 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장학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타 동 전형으로 입학한 차상위계층 이상의 저소득층 입학자에 대해서는 각 대학에서 실시 중인 저소득층 등록금 면제(입학생의 3%) 대상이 되며 무이자 학자금대출 우선 배정을 할 예정이다.

기회균등할당제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를 개정하여 이르면 2009학년도부터 도입·시행될 예정이며, 2008학년도에 입학하는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